Data Annotation Project

8조 MIML

[1] 프로젝트 주제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원시 데이터를 활용해 관계 추출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된 코 퍼스 제작

[2]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 임동진: Data Annotation, IAA 계산

- 정재윤 : Data Annotation, Relation Map 제작

- 조설아 : Data Annotation, Guideline 작성

- 허치영 : Data Annotation, Modeling

- 이보림: Data Annotation, Guideline 작성

[3]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1. 원시 데이터 정제

물 속에 있을 때는 입으로 물을 출입시켜 인후점막으로 피부호흡을 한다.

식물, 작은 물고기 등 다양한 것을 먹고 사는데, 특히 애완용 거북인 붉은귀거북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할 정도 등딱지와 배딱지로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갈비뼈에서 분화된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거북의 딱지는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안쪽 딱지는 골판으로 되어 있어

바깥쪽 딱지는 피부 조직으로부터 형성된 순판이라 하는 딱딱한 뿔 성분으로 되어 있다.

장수거북과 자라는 순판 대신에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다.

거북의 등을 덮고 있는 딱지를 등딱지라고 하며 배부분을 덮은 딱지는 배딱지(복갑)라 한다.

등딱지와 배딱지는 몸의 양 옆에서 연결대라 하는 뼈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땅거북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북은 납작하고 딱지가 유선형이다.

거북의 딱지는 대부분 엷은 검은색, 갈색, 감록색이지만, 밝은 초록색이나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무늬?

문장이 너무 짧아 entity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불완전한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합쳤습니다.

시암고양이는 2011년의 3D 애니메이션 '땡땡의 모험'(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서도 잠시 등장한 바 있다. 2014년 네이버 연재 웹툰 '보토스'(BOTOS)에도 시암고양이를 모델로 한 캐릭터 "보리"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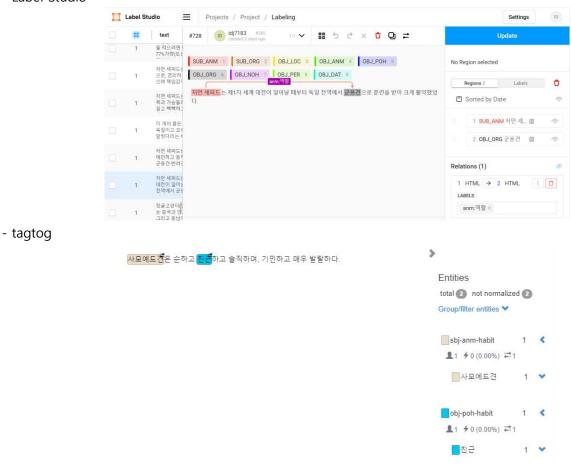
프로젝트 주제인 "반려동물"과 연관이 없는 문장의 경우 문장을 제외하거나 entity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샴고양이(,) 또는 시암고양이는 고양이의 한 품종이다.

학명 또는 외국어의 경우 내용이 누락되고 괄호만 남는 경우가 존재하여 확인 후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정제 결과 총 2193개 문장에서 **1755개**의 문장으로 데이터 양이 줄었습니다.

2. Annotation Tool

- Label Studio



총 두 가지 Annotation Tool로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 엔티티와 관계를 지정했습니다.

3. relation map 초안 작성

총 12개의 relation을 선정하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동물:서식지] [동물:대체표현] [동물:신체적 특징] [동물:질병] [동물:비신체적 특징] [동물:사냥감] [동물:역할] [동물:유래] [동물:개체수] [집단:상위집단] [집단:하위집단] [관계없음]

4. Pilot tagging



전체 데이터 중 약 10%를 Pilot tagging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각자 임의로 tagging한 후 취합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후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5. 최종 Entity Type, Relation Map 도출

1) Entity Type (총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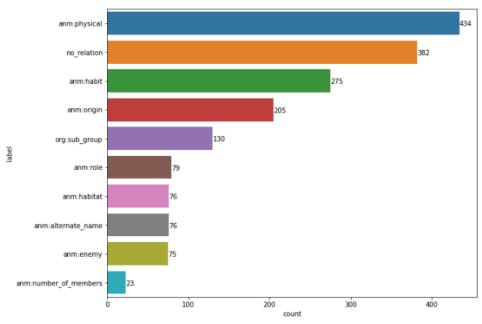
[ANM]: 동물 [ORG]: 집단 [POH]: 기타 [NOH]: 수치

[PER]: 인물 [LOC]: 지역 [DAT]: 날짜

- +) DAT: 수량 표현(NOH)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 2) Relation map (총 10개)
 - 동물:서식지 (anm: habitat) → (ANM, LOC)
 - 동물:대체표현 (anm: alternate_name) → (ANM, ANM/POH/ORG)
 - 동물:신체적 특징 (anm: physical) → (ANM, POH/NOH)
 - 동물:비신체적 특징 (anm: habit) → (ANM, POH/NOH/DAT)
 - 동물:사냥감 (anm: enemy) → (ANM, ANM/POH)
 - 동물:역할 (anm: role) → (ANM, ORG/POH)
 - 동물:유래 (anm: origin) → (ANM, ANM/ORG/POH/PER/LOC)
 - 동물:개체수 (anm: number_of_members) → (ANM, NOH)
 - 집단:하위집단 (org: sub_group) → (ORG, ANM/ORG)
 - 관계 없음 (no_relation) → (ANM/ORG, *)

6. 모델 성능, Fleiss' Kappa

1) 데이터셋 분포



< Data Distribution >

2) Inter Annotator Agreement (IAA) Score

Fleiss' Kappa Score (Pilot Tagging): 0.72 Fleiss' Kappa Score (Final Tagging): **0.79**

3) 모델 학습 성능 (KLUE/BERT-base)

	Only pre-training	With fine-tuning	KLUE Benchmark
Micro F1	12.7119	57.2581	66.44
AUPRC	17.1305	60.4493	66.17

Hyperparameters

Epochs: 3 Batch Size: 2 Learning Rate: 2e-5 Evaluation Step: 60

[4] 자체 평가 의견

Relation Map 설정 시 anm:origin에 해당하는 관계의 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잡았던 것과 너무 많은 범위를 한관계에 포함시키려 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anm:physical의 관계를 갖는 데이터가 no_relation보다 많이 등장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anm:disease와 나누어 사용했다면 더 좋은 분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또한 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KLUE/BERT-base의 리더보드 성능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셋의 크기가 약 20배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 쓸 만한 데이터를 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셋의 크기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면 KLUE 벤치마크 점수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